

##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중소기업의 고용유발 효과분석

# The Effect of the Small and Medium Sized Retailers on the National Employment in Korea

이정희(Lee, Jung-Hee)\* · 주아름(Ju, Ah-Reum)\*\* · 황성혁(Hwang, Seong-Hyuk)\*\*\*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여 경제적 가치를 규명하는 것이다. 대·중·소 소매업체의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분석을 위해 소형 유통업체(상시 근로자 1~9인), 중형 유통업체(상시 근로자 10~49인), 대형 유통업체(50인 이상)로 나누어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2010년 기준 2012년도 연장표를 이용하여, 투입과 배분을 재분류했다. 연구결과, 타 산업에 미치는 취업 및 고용유발 간접효과가 가장 큰 소매업은 중형, 소형, 대형 순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를 포함한 총 취업유발인원은 소형(204만명), 중형(38만명), 대형(34만명)의 순, 총 고용유발효과는 소형(73만명), 대형(26만명), 중형(19만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은 농림수산물, 광산품, 운송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문화 및 기타 서비스 등이고,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은 광산품, 목재 및 종이 인쇄, 운송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금융 및 보험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문화 및 기타서비스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산업 내부적 관계와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유통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간과된 중소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계량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산업연관표 특성상 투입계수행렬 값에 따라 그 반응이 민감하므로 해석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제어: 중소기업, 산업연관분석, 취업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 Abstract

Though the influence of small and medium sized retailers(SMR) in a local area on the national economy is very important, the study on the economic value of SMR has not been sufficient.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o effect of SMR and to investigate its economic value. In this study, an input-output analysis has been conducted. And both retailers and wholesalers have been classified according to scale of employment for the analysis as following: small(1~9 employees), medium(10~49 employees), and large(over 50 employees) sized retailers and wholesalers. On the current input-output table published by bank of Korea, because retailers and

\*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경제학박사, junghlee@cau.ac.kr), 제1저자.

\* First author, Professor, Faculty of Economics, Chung-Ang University.

\*\* (주)FC창업코리아 대리(경제학석사, juarm1985@naver.com), 공동저자.

\*\* Co-author, Assistant Manager, FC ChangupKorea, Co.

\*\*\*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경제학박사, osuhsh@naver.com), 교신저자.

\*\*\* Corresponding author, Vice Research Fellow, Nonghyup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C.

wholesalers are not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cale of employment, this study has made a new input-output table including these retailers and wholesalers under the reasonable assumption using 'Wholesale and Retail Trade Survey' and 'Economic Census' published by National Statistics Office. All data were surveyed in 2012.

As a result of input-output analysis, the retailers that have big coefficients of labor and employment inducement in the national economy appears in order of medium, small and large sized. The total number of employees by induced employment including direct effect shows in order 2,040 thousand for small sized retailers, 380 thousand for medium and 340 thousand for large and labor inducement effect indicates in order 730 thousand for small, 260 thousand for large, and 190 thousand for medium. Therefore, government should protect SMR with big employment-inducing effect and support them to be developed.

Keywords: Small and Medium sized retailers, Input-output analysis, employment inducing effect.

## I. 서론

1996년 국내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된 이후, 우리나라 유통산업은 급속한 구조적 변화를 겪어 왔다. 먼저 마크로, 까르푸, 월마트, 테스코, 코스트코, B&Q, 다이소, Watsons, MUJI 등과 같은 해외 유수의 글로벌 유통기업들이 국내시장으로 몰려왔다. 그리고 자본력과 정보력 등에 앞선 국내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유통시장에 진입하면서, 국내 유통시장은 규모화 및 현대화로 무장한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국내 유통시장을 활성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한편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유통시장의 변화가 오랫동안 우리나라 유통업에서 큰 축을 담당했던 중소유통업을 종폐의 위기로 내모는 원인이 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 소형, 중형 및 대형 유통업체가 함께 공존하는 건강한 유통산업 생태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대형유통업체 위주의 건강하지 못한 유통 생태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대형 유통업체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구색 갖추를 통해 쾌적한 공간 또는 환경에서 일괄적으로 상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제공하는 등의 유익한 작용을 한다. 그러나 유통산업 내에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시장 집중화 문제는 대형유통업체에게 독과점 사업자의 지위를 주어 소비자에게 독과점 공급자가 되며,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에게는 독과점 수요자가 되어 경제 전체의 후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힘의 우위에 의한 불공정거래 문제 발생, 유통시장의 양극화로 인한 갈등 비용 발생 등 사회적으로 치러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이처럼 국내 유통산업 및 경제 전체에 대형유통업체로

인한 명암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장 전면 개방 이후 우리나라 유통산업에 대한 정책 기조는 현대화 및 규모화, 글로벌화 중심의 유통산업진흥이었다. 즉, 대형유통업체의 성장을 돕는 정책이었던 것이다. 대형유통업체 성장 중심의 불균형적 정책은 중소유통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긴 측면도 있다. 대형화가 생산 규모와 고용흡수 및 창출 능력 측면에서 중소형 보다 높다는 개발시대의 논리가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중소유통에 대한 정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중소유통업은 시장 진입이 용이하고 고용흡수력이 높고, 지역 의존성이 강해 중소유통업의 침체는 고용시장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왜냐하면, 중소유통업의 종사자들은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영업자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유통업의 위축은 고용불안과 지역경제의 침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유통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소유통의 문제는 경제적 논리로는 어렵고 사회적·정치적 논리로 접근되어 왔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소유통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중소유통의 가치를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분석한 연구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중소유통의 경제적 가치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의 부족과 경제적 측면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그 기여도가 크다는 선입견 등으로 중소유통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이러한 가운데 유통시장 개방과 함께 그동안 유통산업의 성장을 위한 유통산업진흥정책은 대형유통업체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중소유통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있었다. 그러나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최근에 와서야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간의 상생을 촉진하고, 중소유

통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일수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를 규제 하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나 산업발전을 위해 손실이 크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중소기업의 보호는 그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 가치 또한 크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결국, 이러한 논란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소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이루어지 않아 발생한 부분이 없지 않다. 대부분은 대형유통업체 또는 유통산업 전체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지만, 대형유통업체와 중소기업체를 동시에 놓고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고용효과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취업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유통산업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그 동안의 유통산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산업 간 연관효과를 통한 유통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한 연구(주아름, 2009; 이승창 외, 2010; 조광현, 2011)와 유통산업과 물가(이정희, 2002; 김동훈, 2008; 황성혁 외, 2009), 생산성(김준동 외, 2003), 고용(김동현 외, 1999; 은수미, 2009; 구자성 외, 2010; 한국은행, 2010, 조규호, 2014)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주아름(2009)과 이승창 외(2010)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각각 2005년도와 2009년도 유통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공급지장효과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했다. 조광현(2011)은 한국과 일본의 유통산업 생산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영향력과 감응도를 분석했다. 이 연구들은 경제에서 유통산업의 위상과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진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물가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형유통업체들은 막대한 구매력으로 생산자와 직접거래를 함으로써 유통단계 축소로 절감된 유통비용을 판매 가격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향시 저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대형유통업체의 주장을 검증했다. 일부 품목 군에서 물가 하락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났으나, 경제 전체의 물가하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산업의 고용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유통산업 개방 이후 고용 전망과 고용의 질, 취업과의 관계, 산업연관 분석을 통한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가 주를 이룬다. 김동

현 외(1999)는 유통산업 중 할인점, 전자상거래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직·간접 고용창출이 높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백화점, 슈퍼마켓, 재래시장 등에서의 고용은 정체 또는 순고용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은수미(2009)는 정부정책, 노동시장, 노사관계 등을 살펴보고 유통산업의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감소하고 근로조건 등 고용의 질은 더욱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2010)은 경남지역 유통산업의 고용효과 분석을 통해, 유통시장 개방 이후 기업형 구조로 전환되면서 노동생산성은 높아졌으나 소매업의 고용이 전체적으로 부진하고 고용의 질은 악화된 것으로 보았다. 구자성 외(2010)는 소매유통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고용의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한 벡터오차수정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의 성장은 고용에 정(正)의 영향을 주며, 백화점과 슈퍼마켓 성장은 취업자 수의 증가, 슈퍼마켓과 전문상품소매점의 경우 비정규직 취업자 수의 증가에 정(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호(2014)는 청주지역의 대형마트와 SSM 사례조사를 통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사례조사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지만, 대형마트와 SSM의 경우 전체 인력 중 지역고용 비율이 각각 90%, 64%에 달해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 급여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이어서 고용의 결과 안정성이 높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다.

유통산업과 고용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유통산업의 성장과 발전은 대형유통업체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고용의 질은 전반적으로 저하되어왔다는 공통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업태별 고용효과(구자성 외, 2010; 조규호, 2014)는 일부 분석되어 왔으나, 대·중소유통산업 고용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통산업의 종사자 수가 전체 산업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전 산업의 15%<sup>1)</sup>)이고, 4인 이하 유통업체의 종사자 수 비중이 65%인 점 등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현재 많은 논란이 있는 대중소유통의 고용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고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소매업을 중심으로 대·중소유통의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했다.

## III. 소매업 현황과 이론적 배경

### 1. 소매업 현황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소매업 매출액은 303조 602억 원으로 2000년 115조 5,029억 원에서 162.4% 증

1) 2010년 경제총조사 기준

가했다. 같은 기간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비중은 1~4인 규모 업체가 51.1%에서 39.8%로 11.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동기간 5~9인은 8.1%포인트, 10~19인은 2.6%포인트, 20인 이상은 0.6%포인트 증가했다(<표 1>).

<표 1> 소매업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비중  
(단위 : %, %p)

구분	2000년(A)	2005년	2010년	2012년(B)	B-A
1~4인	51.1	38.0	39.2	39.8	-11.3
5~9인	12.1	11.1	19.2	20.2	8.1
10~19인	7.2	7.1	10.3	9.7	2.6
20인 이상	29.6	43.8	31.4	30.2	0.6

출처: 통계청(KOSIS), 도소매업조사, 경제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

소매업체 사업체 수는 2000년 69만 3,701개에서 2012년 64만 8,304개로 감소했다. 1~4인 규모의 사업체 수가 62,948개 감소한 것이 주된 이유다. 동기간 사업체 수 비중은 1~4인은 감소(95.9→92.9%)하고, 5~9인(2.5%→5.1%), 10~19인(1.1%→1.2%), 20인 이상(0.6%→0.8%)은 증가했다. 소매업 종사자 수 비중도 1~4인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전체 소매업 종사자 수는 증가(2000년 153만 3,179명→2012년 161만 6,313명)했지만, 1~4인 규모의 종사자 수는 오히려 감소(2000년 118만4,951명→2012년 104만6,956명)했다. 그 비중도 동기간 77.3%에서 64.8%로 감소했다. 반면, 5인 이상 업체 종사자 수 비중은 증가했다. 규모가 영세한 소매업체 일수록 영업이익률 감소가 두드러진다. 소매업 영업이익률이 2012년 7.2%로 2000년(11.0%) 보다 3.8%포인트 감소했는데, 이는 1~4인 업체 감소(16.0%→9.9%)가 주된 이유다(<표 2>).

<표 2> 소매업 종사자 규모별 영업이익률  
(단위 : %, %p)

업체규모	2000년(A)	2005년	2010년	2012년(B)	B-A
1~4인	16.0	23.4	16.9	9.9	-6.1
5~9인	6.6	10.6	18.7	4.0	-2.6
10~19인	3.1	8.1	4.5	3.8	0.7
20인 이상	6.2	10.6	6.9	7.0	0.8
전체	11.0	15.3	21.3	7.2	-3.8

출처: 통계청(KOSIS), 도소매업조사, 경제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

## 2. 산업연관분석 개요

산업연관분석은 산업간 연관관계를 통해 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이다. 일반적으로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으로 불리는 산업연관분석은 생산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산업간 상호 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이다. 산업연관분석은 일반균형모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산업의 산출변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부문별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경제계획의 수립과 예측 그리고 산업에 대한 정책의 수립, 조정 등에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된다.

유통산업은 다른 산업 부문에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완제품의 형태로 매입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이러한 활동은 관련된 산업의 생산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유통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는 자체의 산출효과 뿐만 아니라 연관효과를 통해 타 산업 부문의 생산을 유발시켜 결과적으로는 산업전체의 생산을 촉진한다. 유통산업의 산출증가 또는 투자를 통한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 산업연관분석은 중소기업의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분석 도구가 될 수 있다.

산업연관분석에서 각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해당 산업부문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이로 인해 다른 산업부문에 나타나는 간접효과(indirect effect)로 나눌 수 있다. 유발효과(induced effect)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유통산업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타 산업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중간재로 투입하게 된다. 이처럼 최종수요를 위해 직접 투입되는 파급효과를 직접효과라 한다. 즉, 직접효과는 해당산업 내에서의 중간재 투입량 증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1차 파급효과라 한다. 그리고 직접효과로 나타난 각 산업의 생산물(중간재로 투입된)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시 관련 산업의 생산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간접효과라 한다. 생산에 파급효과를 주면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에 파급효과를 주면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에 파급효과를 주면 취업유발계수, 고용에 파급효과를 주면 고용유발계수라 부른다.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승수효과를 통해 예측된다. 이러한 경제적 승수효과에 기반을 둔 모형에는 산업연관분석과 경제기반분석이 있는데, 산업연관분석은 산업간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춘 반면, 경제기반분석은 거시계량 모형에 근거하고 있다(조규호, 2014).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산업적 효과를 통한 고용 파급효과를 예측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한다.

## 3. 중소기업의 고용파급효과 분석 모형 도출

산업연관표는 내생부문과 외생부문으로 나뉜다. 내생부문은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 간 거래인 중간수요와 중간투입을 기록하는 부문이다. 외생부문은 최종수요와 부가가치를 기록하는 부문이다. 산업연관표는 최종 수요의 수준

이 국내 생산을 규정하는 개방형 모형을 취한다. 통상적인 분석으로는 중소기업 부분의 산출 변화가 자기부문 외에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알 수 없다(이승철 외, 2009). 그래서 관심 갖는 산업을 외생적으로 취급하여 그 산업의 산출 변화가 내생적인 경제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방법을 택한다(유승훈 외, 2004). 다시 말해, 관심 갖는 산업을 외생부문으로 이동하여 자기부문에 대한 직접효과와 타 산업부문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구분하여 해당산업의 경제파급효과를 보다 명확히 살펴볼 수 있다(이승철 외, 2009).

중소기업이 다른 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산업연관표의 내생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중소기업을 외생부문으로 다루는 별도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해야 한다.

산업연관표의 내생부문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행과 열을 제외하고, 이를 외생부문으로 넘긴 후 행렬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d X + A_h^e X_h + Y = X \text{ ----- (1)}$$

여기서  $A^d$ 는 중소기업이 제외된 투입계수 행렬을 나타내며,  $X$ 는 중소기업이 제외된 총산출액의 열벡터를 나타낸다.  $A_h^e$ 는 투입계수행렬  $A$ 에서 중소기업 부분을 나타내는 열벡터 중에서 중소기업의 투입계수를 제외한 열벡터를 의미하며,  $X_h$ 는 중소기업의 총산출액을 나타낸다. 그리고  $Y$ 는 최종수요를 나타낸다. 식(1)을  $X$ 에 대해 정리하면,

$$X = (I - A^d)^{-1} (A_h^e X_h + Y) \text{ ----- (2)}$$

여기서,  $Y=0$ 으로 가정하면 아래의 식으로 정리된다.

$$X = (I - A^d)^{-1} (A_h^e X_h) \text{ ----- (3)}$$

식(3)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는 식으로서 중소기업의 산출이 경제 내 다른 부문의 산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중소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친 고용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식(3)에 취업계수를 곱하여 고용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M^e = \widehat{m}^e (I - A^d)^{-1} (A_h^e X_h) \text{ ----- (4)}$$

여기서,  $M^e$ 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각 부문별 취업자 수를 나타내며,  $\widehat{m}^e$ 는 취업계수 대각행렬에서 중소기업

의 행과 열을 제외시키고 남은 행렬이다.

식(4)에서  $\widehat{m}^e (I - A^d)^{-1} A_h^e$ 는 취업유발계수이다. 그리고 여기서 취업유발계수는 중소기업의 산출액이 10억 원 증가하였을 경우, 중소기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의 취업자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식(4)에서  $\widehat{m}^e$ 를 고용계수로 대체할 경우,  $\widehat{m}^e (I - A^d)^{-1} A_h^e$ 는 고용유발계수가 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산출액이 10억 원 증가하였을 경우, 중소기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의 임금근로자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의미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고용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외생화했던 방식으로 대형유동업을 외생화하여 식(1)에서 식(4)의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대형유동업의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를 산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추후에 중소기업과 대형유동업의 고용파급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

#### 4. 중소기업이 포함된 산업연관표 작성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실측표 기준 2012년 연장표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산업연관표는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산업을 384개의 기본 부문으로 분류하여 기초표를 만들고 있다. 기초표를 토대로 161개 부문(통합 소분류), 82개 부문(통합 중분류) 및 30개 부문(통합 대분류)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산업연관표 작성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분류한 산업에는 중소기업업을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산업분류체계에 의해 작성된 산업연관표만을 가지고 중소기업업의 경제효과를 분석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분석을 위해 산업연관표의 유통산업에서 중소기업업을 재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4.1. 중소기업업의 범위

유통업은 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을 가리킨다. 도매와 소매업의 산업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도매와 소매업을 분리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유통업의 경우 자동차 판매업은 제외하므로, 이를 제외한 도매와 소매업으로 한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체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200명 미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도소매업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인 미만,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나누고 있다. 통계청 자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소기업체로 구분이 되지 않고, 종사자 규모로만 구분이 되어 있다. 종사자 규모로 나누는 경우에는 소규모 SSM도 중기업 규모에 속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중소기업 구분은 통계 현실을 고려하여, 소형 유통업체는 상시근로자 1-9인, 중형 유통업체는 상시근로자 10-49인, 대형 유통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구분한다.

4.2. 중소기업이 포함된 산업연관표 상에서 산업의 재분류

유통업을 도매소매업과 종사자규모별로 나누어 산업연관표를 재분류하면 1개의 유통산업이 6개로 세분류된다. 즉, 소형도매업, 중형도매업, 대형도매업, 소형소매업, 중형소매업, 대형소매업을 재분류하여 분석한다.

<표 3> 산업연관표의 재분류

코드	산업명	코드	산업명	코드	산업명
1	농림수산업	13	정밀기기	25	사업지원서비스 2)
2	광산업	14	운송장비	26	공공행정 및 국방
3	식품산업	15	기타 제조업제품 및 임가공	27	교육서비스
4	섬유 및 가죽제품	16	전력, 가스 및 증기	28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5	목재 및 종이제품, 인쇄	17	수도, 폐기물 및 활용서비스	29	문화 및 기타서비스3)
6	석탄 및 석유제품	18	건설	30	소형(1~9인) 도매업
7	화학제품	19	운송서비스	31	중형(10~49인) 도매업
8	비금속광물제품	20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32	대형(50인이상) 도매업
9	제1차 금속제품	21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33	소형(1~9인) 소매업
10	금속제품	22	금융 및 보험서비스	34	중형(10~49인) 소매업
11	기계 및 장비	23	부동산 및 임대	35	대형(50인이상) 소매업
12	전기 및 전자기기	2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1)		

주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에는 국공립·비영리·민간 연구개발, 법무 및 회계서비스, 법무 및 경영지원 서비스, 과학기술 관련 전문서비스 등이 포함

주2. 사업지원서비스에는 청소 소독 및 시설유지, 인력공급 및 알선, 기타사업지원서비스 등이 포함  
 주3. 문화 및 기타서비스에는 문화서비스,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 사회단체, 수리 및 개인서비스(이미용, 세탁, 가사서비스, 기타 개인서비스) 등이 포함

4.3. 배분부문 도출

산업별 종사자 규모별 도소매업 자료를 이용해 금액을 산출해야 하나, 통계자료의 한계가 있다. 유통서비스가 배분된다는 의미는 유통서비스가 다른 산업에 얼마나 판매(이용)되었는지를 말한다. 유통 서비스의 판매는 매출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산업연관표에서 유통서비스의 판매는 매출액의 규모로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소 소매업의 배분액은 해당 소매업 규모별 매출액에 비례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업연관표 도소매 산출액 구분을 위해 도소매업조사의 도매와 소매의 매출액 비중, 도매와 소매의 각 규모별 매출액 비중을 적용했다. 따라서 다음의 가정 하에 배분액(행)을 산출한다.

첫째, 모든 산업은 도소매업을 이용하며 이는 해당 유통업종을 통한 거래를 의미한다. 둘째, 도소매업 이용은 산업의 규모와 비례한다. 즉, 음식료품은 음식료품 도매업과 소매업을 통해 거래하고, 이용금액은 음식료품 도매업과 소매업의 규모 비율과 같다. 식품산업(음식료품제조업)의 생산물은 음식료품업 도소매업을 통해 거래된다고 가정(<표 4>)하고, 2012년 소매업 중 음식료품 및 담배 도소매업의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비중을 구한다(<표 5>). 그리고 소매업 종사자 10인 미만의 매출 비중을 산업연관표 도소매업 산출액에 적용하여 10인 미만 중소소매업의 음식료품 배분액을 도출한다. 통계자료는 2012년 종사자 규모별 도소매업 매출액 자료를 이용하며, 건설, 금융 등과 같이 도소매업 자료가 없는 경우 2010년 경제총조사의 해당 업종 매출액 자료를 이용한다.

<표 4> 도소매업 배분액 산출을 위한 도소매업 분류

산업연관표	도소매업조사, 경제총조사	
	도매업	소매업
농림수산물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중개업, 곡물 도매업, 종자 및 목목 도매업,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 및 산동물 도매업, 비가공 식품 도매업	곡물 소매업, 육류 소매업, 과일 및 채소 소매업, 수산물 소매업, 산동물 도매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기타 산업용 농산물
광산품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금속광물 도매업	
음식료품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사료 도매업, 가공식품 도매업, 음료 및 담배 도매업	빵 및 과자류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기타 식료품 소매업, 음료 및 담배 소매업, 애완동물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섬유 및 가죽제품	방직용섬유사 및 직물 도매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가정용섬유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도매업, 신발 도매업,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목재 및 종이, 인쇄	종이 인쇄물 및 문구용품 도매업, 원목 및 건축관련 목제품 도매업,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	벽지 및 장판류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음반 및 비디오품 소매업

석탄 및 석유제품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연료 소매업
화학제품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 그외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도료 도매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비금속광물제품	유리 및 창호 도매업, 그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1차 금속제품	1차 금속제품 도매업	
금속제품	철물 및 냉·난방장치 도매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기계공구 소매업
기계 및 장비	기계장비 중개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그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사무용 기기 소매업
전기 및 전자기기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가전제품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전구·램프 및 조명장치 도매업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소매업
정밀기기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	안경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기타 광학 및 정밀 기기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운송장비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수송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가정용 가구 도매업, 가정용요업제품 비전기식 주방용품 및 날붙이 도매업, 기타 비전기식 가정용 기기 및 기구 도매업, 음반 및 비디오품 도매업, 악기 도매업,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가구 소매업, 식탁 및 주방용품 소매업, 악기 소매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문구용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예술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전력, 가스 및 증기	전력, 가스 및 증기	전력, 가스 및 증기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건설	건설	건설
도소매 서비스	상품종합 중개업, 기타 상품 중개업, 상품 종합도매업	종합 소매업, 무점포 소매업
운송 서비스	운수업	운수업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 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	교육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lt;표 5&gt; 도소매 배분 산출액에 적용한 부문별 최종 비율

(단위 : %)

구분	도매			소매			합계	
	1~9인	10~49인	50인~	1~9인	10~49인	50인~		
1	농림수산물	60.7	19.3	3.7	15.0	1.0	0.2	100.0
2	광산품	73.0	19.9	7.1	0.0	0.0	0.0	100.0
3	음식료품	39.9	36.7	16.6	5.3	1.0	0.6	100.0
4	섬유 및 가죽제품	25.9	13.5	21.2	33.4	4.8	1.3	100.0
5	목재 및 종이, 인쇄	51.6	23.9	9.5	11.4	2.2	1.4	100.0
6	석탄 및 석유제품	11.9	19.6	9.5	49.1	9.8	0.2	100.0
7	화학제품	34.8	28.6	20.8	13.4	2.3	0.1	100.0
8	비금속광물제품	73.1	25.5	1.4	0.0	0.0	0.0	100.0
9	1차 금속제품	48.9	30.3	20.7	0.0	0.0	0.0	100.0
10	금속제품	62.3	17.7	4.7	14.6	0.7	0.0	100.0
11	기계 및 장비	60.4	24.1	14.0	1.4	0.2	0.0	100.0
12	전기 및 전자기기	28.7	24.0	17.8	22.8	5.8	0.8	100.0
13	정밀기기	32.9	26.1	23.7	16.1	1.2	0.0	100.0
14	운송장비	32.0	41.3	9.1	17.1	0.5	0.0	100.0
1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21.5	15.0	18.4	39.0	5.0	1.1	100.0
16	전력, 가스 및 증기	2.2	6.7	41.1	2.2	6.7	41.1	100.0
17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11.2	27.0	11.8	11.2	27.0	11.8	100.0
18	건설	6.3	13.2	30.5	6.3	13.2	30.5	100.0
19	도소매 서비스	2.9	3.2	16.4	22.0	15.2	40.4	100.0
20	운송 서비스	9.5	11.2	29.3	9.5	11.2	29.3	100.0
2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34.6	9.6	5.8	34.6	9.6	5.8	100.0
22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3.8	11.1	35.0	3.8	11.1	35.0	100.0
23	금융 및 보험 서비스	3.6	19.7	26.7	3.6	19.7	26.7	100.0
24	부동산 및 임대	19.2	15.3	15.5	19.2	15.3	15.5	100.0
2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7.4	11.9	30.8	7.4	11.9	30.8	100.0
26	사업지원서비스	10.4	14.1	25.5	10.4	14.1	25.5	100.0
27	공공행정 및 국방	0.6	6.2	43.2	0.6	6.2	43.2	100.0
28	교육서비스	7.5	11.7	30.8	7.5	11.7	30.8	100.0
29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14.2	10.9	24.9	14.2	10.9	24.9	100.0
30	문화 및 기타서비스	18.6	14.6	16.8	18.6	14.6	16.8	100.0

#### 4.4. 투입부문 도출

산업연관표 상 도소매업 투입부문은 도소매업이 생산(판매)활동을 하기 위해 지출한 경비를 의미한다. 산업연관표 도소매업 부문의 산업별 투입된 금액을 종사자규모별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도소매업 항목별 지출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소매업 항목별 지출자료를 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통계청 도·소매업조사의 규모별 비용구조가 산업연관표 상 투입구조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투입부문을 추정했다.<sup>2)</sup>

산업연관표 도·소매업 투입부문 산출을 위해 투입부문은 판매활동에 따른 가변비용으로 가정한다. 가변비용은 종사자 수, 매장면적, 매출실적, 임차료 등에 비례하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임차료는 매장면적이 클수록 증가하고 의복비는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증가, 운송비는 판매량(매출액)이 많을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 도·소매업 지출 비용에 대한 성격을 파악하여 투입부문에 적용(<표 6, 7>)하여 투입액을 산출했다.

2) 실제로 한국은행에서는 도소매업의 투입내역을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등 기존 정부통계자료와 표본조사를 통해 추계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비용구조와 산업연관표 상 투입구조가 동일하다는 가정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표 6> 투입부문별 적용 기준

투입 부문	적용기준 (적용된 산업부문 수)
농림수산물, 광산품,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인쇄,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품, 전력 가스 및 증기,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도매(1~9인), 도매(10~49), 도매(50~), 소매(1~9), 소매(10~49), 소매(50~), 운송서비스,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문화 및 기타서비스	매출액 (27)
음식료품,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금융 및 보험서비스	종사자수(3)
비금속광물, 1차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건설	건물연면적(5)
부동산 및 임대	임차료(1)
순생산물세, 잔폐물, 기타 생산세	세금(3)
피용자 보수	인건비(1)
고정자본소모	감가상각비(1)
영업잉여	영업잉여(1)

<표 7> 투입부문 적용 비중(%)

구분	종사자별	매출액	종사자수	건물연면적	임차료	세금	인건비	감가상각비	영업이익
도매	1~9	29.2	24.1	27.2	18.4	26.5	27.4	16.7	28.4
	10~49	19.8	9.5	7.8	6.2	12.3	21.2	23.3	14.4
	50~	15.4	5.6	3.0	6.9	7.5	15.3	18.3	10.9
소매	1~9	21.3	47.1	40.3	47.1	29.4	19.0	12.8	30.4
	10~49	5.9	8.0	5.9	8.7	6.8	7.4	9.2	4.7
	50~	8.2	5.8	16.0	12.8	17.4	9.7	19.8	11.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2012년 도소매업조사, 2010년 경제총조사 이용하여 가공

## IV. 연구결과

### 1. 취업유발효과

취업유발계수는 해당산업의 생산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타 산업에서 유발되는 취업유발인원을 말한다. 소매업이 타 산업에서 유발하는 간접 취업유발효과는 중형(8.43586), 소형(8.25901), 대형(6.6393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접취업유발계수<sup>3)</sup>를 포함한 총 취업유발계수는 소형(33.96671), 중형(26.76076), 대형(14.7927) 순으로 높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소형 소매업의 경우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1.20486), 사업지원서비스(1.20125), 운송서비스(1.04024), 농림수산물(0.58002), 금융 및 보험서비스(0.51603),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0.50067), 부동산 및 임대(0.45499), 문화 및 기타서비스(0.39179), 광산품(0.2805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음식료품의 경우 소형 소매업이 14위, 중형 소매업이 17위, 대형소매업이 21위로 규모가 작은 소매업일수록 음식료품 제조업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형 소매업의 경우 사업지원서비스(1.34733), 운송서비스(1.18370),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93870),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0.5683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0.56709), 농림수산물(0.48117), 금융 및 보험서비스(0.46182), 문화 및 기타서비스(0.43761), 부동산 및 임대(0.37305), 광산품(0.3066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형 소매업의 경우 사업지원서비스(1.12868), 운송서비스(1.0034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50886),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0.4782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0.47445), 문화 및 기타서비스(0.36691), 금융 및 보험서비스(0.32976), 부동산 및 임대(0.32957), 농림수산물(0.28998), 광산품(0.259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접 취업유발인원(산업연관표상 규모별 소매업 취업자수)과 간접취업유발인원(<표 8>의 합계 간접취업유발계수×산업연관표 상 산출액)을 포함한 총 취업유발인원은 소형(204만명), 중형(38만명), 대형(34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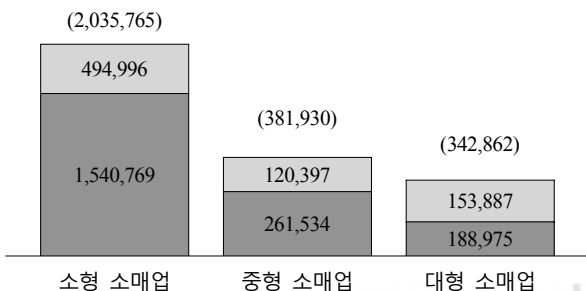
3) 직접 취업유발계수는 산업연관표 상 직접 고용되는 취업자수(산업연관표 상에는 규모별 취업자 수가 나뉘져 있지 않으므로 통계청 도소매업조사의 종사자수 비중을 산업연관표 도소매부문에 적용하여 분리)를 산출액으로 나눈 값(이승창 외, 2010 참조).

<표 8> 분석결과-소매업 규모별 취업유발계수

산업부문	소형 소매업		중형 소매업		대형 소매업	
	계수(명/10억원)	순위	계수(명/10억원)	순위	계수(명/10억원)	순위
농림수산물	0.58002	4	0.48117	6	0.28998	9
광산품	0.28058	10	0.30669	10	0.25936	10
음식료품	0.12562	14	0.10035	17	0.05687	19
섬유 및 가죽제품	0.08037	17	0.08976	18	0.07516	17
목재 및 종이, 인쇄	0.16926	11	0.18897	12	0.15768	12
석탄 및 석유제품	0.00448	34	0.00496	34	0.00418	34
화학제품	0.09322	16	0.10153	16	0.08511	16
비금속광물제품	0.01498	33	0.01444	33	0.01333	33
1차 금속제품	0.02547	30	0.02482	31	0.02360	30
금속제품	0.04765	26	0.04238	26	0.04421	25
기계 및 장비	0.05560	23	0.04970	24	0.05265	21
전기 및 전자기기	0.05722	22	0.06286	21	0.05348	20
정밀기기	0.02371	31	0.02608	30	0.02221	31
운송장비	0.03274	27	0.03669	27	0.03107	27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0.10538	15	0.11252	15	0.09446	15
전력, 가스 및 증기	0.02864	29	0.03087	29	0.02586	29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0.05427	24	0.05743	23	0.04790	24
건설	0.05375	25	0.04505	25	0.04413	26
도매 1~9	0.14686	12	0.14392	14	0.11449	14
도매 10~49	0.06316	20	0.06401	20	0.05123	23
도매 50인~	0.05790	21	0.06269	22	0.05189	22
소매1~9	-	-	0.21950	11	0.17440	11
소매 10~49	0.07806	18	-	-	0.06945	18
소매 50인~	0.07280	19	0.08214	19	-	-
운송 서비스	1.04024	3	1.18370	2	1.00341	2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20486	1	0.93870	3	0.50886	3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50067	7	0.56832	4	0.47824	4
금융 및 보험 서비스	0.51603	5	0.46182	7	0.32976	7
부동산 및 임대	0.45499	8	0.37305	9	0.32957	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0.51245	6	0.56709	5	0.47445	5
사업지원서비스	1.20125	2	1.34733	1	1.12868	1
공공행정 및 국방	0.02046	32	0.02252	32	0.01876	32
교육서비스	0.03193	28	0.03632	28	0.03062	28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0.13261	13	0.15086	13	0.12738	13
문화 및 기타서비스	0.39179	9	0.43761	8	0.36691	6
전 산업	합계(간접유발계수)(A)	8.25901	8.43586		6.63936	
	직접유발계수(B)	25.70770	18.32490		8.15334	
	총 효과(A+B)	33.96671	26.76076		14.79270	

<그림 1> 소매업 규모별 취업유발인원

(단위: 명)



주) 괄호 ( ) 안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더한 총 취업유발인원

## 2. 고용유발효과

고용유발계수는 해당산업의 생산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각 산업에서 유발되는 고용유발인원이다. 간접 고용유발계수는 중형(5.99175), 소형(5.79147), 대형(4.8082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접 고용유발계수<sup>4)</sup>를 포함한 총 고용유발계수 역시 중형(13.52907), 소형(12.21246),

4) 직접 고용유발계수는 산업연관표 상 직접 고용되는 피용자 수(산업연관표 상에는 규모별 피용자 수가 나뉘져 있지 않음)로 통계청 도소매업조사의 종사자수 비중을 산업연관표 도소매부문에 적용하여 분리를 산출액으로 나눈 값(이승창 외, 2010 참조).

대형(11.22003)의 순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소형 소매업의 경우 사업지원서비스(1.14444),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61174), 운송서비스(0.53616), 금융 및 보험서비스(0.4944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0.45598),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0.45383), 부동산 및 임대(0.28968), 광산품(0.24642), 문화 및 기타서비스(0.21154), 목재 및 종이, 인쇄(0.1297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형은 사업지원서비스(1.28361), 운송서비스(0.61010),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0.5151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0.50460),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47661), 금융 및 보험서비스(0.44248), 광산품(0.26935), 부동산 및 임대(0.23750), 문화 및 기타서비스(0.23628), 목재 및 종이, 인쇄(0.1448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형은 중형 소매업보다 크기는 작으나 산업별 순위는 대체로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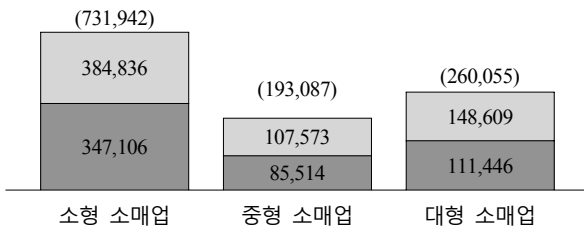
직접 고용유발인원(산업연관표상 규모별 소매업 피용자수)과 간접고용유발인원(<표 9>의 합계 간접고용유발계수×산업연관표 상 산출액)을 포함한 총 고용유발인원은 소형(73만명), 대형(26만명), 중형(19만명) 순으로 높다.

<표 9> 분석결과-소매업 규모별 고용유발계수

산업부문	소형 소매업		중형 소매업		대형 소매업	
	계수 (명/10억원)	순위	계수 (명/10억원)	순위	계수 (명/10억원)	순위
농림수산물	0.04305	22	0.03572	24	0.02152	29
광산품	0.24642	8	0.26935	7	0.22778	7
음식료품	0.08729	14	0.06974	17	0.03952	21
섬유 및 가죽제품	0.05554	19	0.06203	19	0.05194	17
목재 및 종이, 인쇄	0.12977	10	0.14488	10	0.12090	10
석탄 및 석유제품	0.00438	34	0.00485	34	0.00408	34
화학제품	0.08457	16	0.09210	14	0.07720	13
비금속광물제품	0.01240	33	0.01195	33	0.01104	33
1차 금속제품	0.02287	30	0.02228	32	0.02119	30
금속제품	0.03942	23	0.03505	25	0.03657	22
기계 및 장비	0.04791	21	0.04282	22	0.04537	19
전기 및 전자기기	0.05280	20	0.05802	20	0.04936	18
정밀기기	0.02234	31	0.02458	30	0.02094	31
운송장비	0.03123	27	0.03500	26	0.02964	2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0.08552	15	0.09132	15	0.07667	15
전력, 가스 및 증기	0.02847	28	0.03068	28	0.02571	27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0.03932	24	0.04161	23	0.03471	23
건설	0.03876	25	0.03249	27	0.03183	24
도매 1~9	0.09843	12	0.09646	13	0.07674	14
도매 10~49	0.07278	17	0.07376	16	0.05903	16
도매 50인~	0.08969	13	0.09710	12	0.08038	12
소매1~9	-	-	0.05482	21	0.04356	20
소매 10~49	0.03211	26	-	-	0.02857	26
소매 50인~	0.05725	18	0.06460	18	-	-
운송 서비스	0.53616	3	0.61010	2	0.51717	2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61174	2	0.47661	5	0.25836	6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45383	6	0.51516	3	0.43350	3
금융 및 보험 서비스	0.49442	4	0.44248	6	0.31596	5
부동산 및 임대	0.28968	7	0.23750	8	0.20983	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0.45598	5	0.50460	4	0.42217	4
사업지원서비스	1.14444	1	1.28361	1	1.07530	1
공공행정 및 국방	0.02046	32	0.02252	31	0.01876	32
교육서비스	0.02535	29	0.02884	29	0.02431	28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0.12554	11	0.14282	11	0.12059	11
문화 및 기타서비스	0.21154	9	0.23628	9	0.19811	9
전 산업	합계(간접고용유발계수)(A)	5.79147	5.99175	4.80829		
	직접고용유발효과(B)	6.42099	7.53732	6.41174		
	총 효과(A+B)	12.21246	13.52907	11.22003		

<그림 2> 소매업 규모별 고용유발인원

(단위: 명)



주) 괄호 ( ) 안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더한 총 고용유발인원

### V. 토의 및 결론

분석 결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비중은 줄고 있으나 여전히 유통산업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고용의 중요성이 크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는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소형 소매업은 지난 10여년 사이에 매출액, 사업체 수, 종사자 수에서 그 비중이 모두 줄어들었으나 사업체 수(92.9%)와 종사자 수(92.9%) 비중이 가장 높아 취업과 고용에 대한 기여가 높다.

산업연관분석 결과, 타 산업에 미치는 취업 및 고용유발 간접효과가 가장 큰 소매업은 소형 소매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를 포함한 총 취업유발인원은 소형(204만명), 중형(38만명), 대형(34만명)의 순, 총 고용유발인원은 소형(73만명), 대형(26만명), 중형(19만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은 농림수산물, 광산물, 운송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문화 및 기타 서비스가 높게 나타났다. 고용유발의 경우 광산물, 목재 및 종이 인쇄, 운송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금융 및 보험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문화 및 기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에 경기불황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유통산업의 침체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불황을 타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현재 적용중인 SSM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철회하고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유통산업 전반에 걸친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시급한 사안인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타 산업에 미치는 고용유발효과가 큰 중소기업체를 보호하되 이들이 유통산업의 경쟁력 있는 축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규모별 유통업체의 취업 및 고용유발 효과를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게 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증대가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얘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중소기업체가 규모의 경제성에서 오는 경쟁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조직화·협업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성 효과가 나타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유통시장에 경쟁에 대한 합리적 제한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유통시장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골목상권 입지형 소매유통업체를 지정하고 지정된 유통업체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쟁력은 인적자원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중소기업체의 대부분은 임금, 고용안정성, 사회보장 등에서 매우 열악하여 좋은 인력의 신규 유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사업에 대한 의욕이 높고 현대적 경영 방법 도입 등으로 침체된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다양한 유인책 마련과 함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문제는 그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중소기업이 침체되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상권이 침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유통정책 뿐만 아니라 지역정책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유통정책 수립에 있어 유통산업 내부적인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의 연관정도를 통해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유통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다수의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정책에 있어서,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타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 중요성이 있음을 잘 인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에 간과되어 왔던 중소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 산업연관표를 소형, 중형, 대형유통업체로 재분류하여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산업연관분석의 특성상 투입계수행렬 계수의 값에 그 반응이 민감하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해석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연관분석은 본 연구의 목적인 중소기업의 고용효과 분석을 위한 정교한 모델이 아니라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향후에는 중소기업의 고용효과 분석을 위해 다른 방법론과 모형으로 분석을 시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김동훈 (2009), “유통시장 개방이 유통산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현 · 노정휘 · 박의경 · 김정우 · 권미영 (1999), 「주요 서비스산업 고용창출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구자성 · 이정희 · 황성혁 (2010), “소매유통 업체의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형태 분석”, 「생산성논집」, 제24권 제3호, pp.89~126.
- 이데 마사히로 (2010), 「산업연관분석 입문」, 제주대학교 출판부.
- 김준동 · 김종일 · 강준구 (2003),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 개방의 이익과 과제: 국내 소매업의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개방 연구시리즈.
- 서용구 · 배상근 (1998), “우리나라 유통 업체별 성장 예측 모형 연구”, 「유통연구」, 제6권 제2호, pp.41~64.
- 유승훈 · 허재용 · 김기주 (2004), “투입산출표의 외생화를 이용한 전파방송산업의 산업파급효과 분석”, 「산업경제연구」, 제17권 제5호, pp.1593~1612.
- 은수미 · 김종진 · 김순영 (2009), 「유통, 서비스산업 고용관계 : 음식점, 호텔업, 백화점과 할인마트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승창 · 정강옥 · 황진영 · 임응순 (2010), “유통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유통연구」, 제15권 제5호, pp.175~193.
- 이승철 · 이승재 · 한중호 (2009),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부동산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부동산연구」, 제19집 제1호, pp.5~26.
- 이정희 (2002),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효과분석 및 대응방향”, 「2002 한국유통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43~56.
- 주아름 (2009), “국내 유통산업의 산업연관관계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광현 (2011), “유통산업의 한일비교 연구”, 「유통연구」, 제16권 제5호, pp.171~192.
- 조규호 (2014), “대형마트 및 SSM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 청주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유통경영학회지」, 제17권 제3호, pp.99~114.
- 한국은행 (2007), 「산업연관분석 해설서」.
- 한국은행 (2014), 「2010 기준 2012년 산업연관표 연장표」.
- 한국은행 (2010), “경남지역 유통산업의 구조변화가 고용 및 생산에 미친 영향”, 한국은행 경남본부.
- 황성혁 · 이정희 · 노은정 · 주아름 (2009), “신유통업체 위주의 유통구조 변화가 국내 소비자 물가에 미친 영향”, 「유통연구」, 14권 제4호, pp.125~150.
- 통계청, KOSIS (<http://kosis.kr>), 도소매업서비스.
- 통계청, KOSIS (<http://kosis.kr>), 서비스업총조사.
- 통계청, KOSIS (<http://kosis.kr>), 소매업체별 판매액(지수).
- Oosterhaven, J. (1988), “On the plausibility of supply-driven input-output model”,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28 No.2, pp.203~217.

논문접수일 : 2014. 11. 09. 논문수정일 : 2014. 12. 17. 게재확정일 : 2014. 12. 21.